

휴가철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준비 사항

본격적인 휴가 시즌. 그러나 여행 도중 급작스럽게 자동차에 고장이 발생하면 모처럼의 여행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는 피서로 변할 수도 있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한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과 다녀온 후의 자동차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휴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사항

정비점검은 완벽하게

휴가를 먼 곳으로 떠날 때에는 최소한 1주일 전에 자동차에 대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하루전이나 출발 당일로 미루다 보면 시간에 쫓겨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름철 주행에서 가장 빈번한 고장은 엔진과 열과 타이어의 고장이다.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다음 여섯 가지 기본 점검만은 확실하게 하고 떠나야 한다.

첫째, 타이어에 상처 난 곳이 없는지, 공기압이 정상인지를 점검

둘째, 팬벨트의 장력이 느슨하지 않은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

셋째, 냉각수의 확인
넷째, 엔진오일이 부족하거나 몹시 더러워져 있는지를 확인.

다섯째, 등화장치가 정상인가를 확인.

마지막으로 뒤 트렁크에 넣어둔 공구와 스페어 부품도 제대로 들어 있는지 확인

연료는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

휴가철은 장거리 운행과 고속도로 주행이 많아지는 시기이며, 이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연료량의 확인이다. 자동차의 연료소모율은 주행환경과 도로 사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평소 10l 를 주유하면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계산만 믿다 보면 낭패를 보게 되므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LPG차량의 경우는 가스를 충전하고, 다음에 충전할 충전소를 확인하고 떠나는 것이 좋으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용 부탄가스와 이를 차량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함께 휴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동차를 장시간 주차 시 자동차 내부의 온도가 급상승하여 부탄가스통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탄가스통 관리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기본 상비품

비상시 필요한 기본적인 상비품은 필히 가지고 떠나야 한다.

- 기본공구 : 플라이어, 드라이버, 스패너, 타이어 교환공구 (잭, 휠렌치) 등
- 비상물품 : 약간의 철사(라디



에이터 호스 및 머플러 고정용), 손전등, 절연 고무테이프, 냉각수 보충을 위한 물통, 여분의 휴즈, 팬벨트, 전구 등 - 스페어타이어 공기 충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기

먼저 코스를 정하라

고속도로 주행에 나서려면 우선 어느 인터체인지를 이용할 것이며 어떤 분기점을 지나야 하는지를 체크하고 출발해야 한다. 자신이 예정한 출구를 지나치게 되면 다음 인터체인지까지 주행해야 된다. 또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엔 반드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므로 휴게소의 위치나 주차장등도 미리 알아두어 쉴 곳을 예정해 두는 것이 좋다.

그때 그때의 기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쉬게 되면 피로도 잘 풀리지 않으며 사고 날 확률도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다릴 때는 안내, 주의, 규제, 지도표시 등의 표지판을 모두 주시해야 한다.

또한, 휴가철 여행은 업무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즐거운 계획에 의한 흥분감 때문에 들뜨기 쉽고, 무더운 여름에는 운전방법이 단조로워 피로가 가중되고 졸음운전이 되기 쉽다. 과로는 여름철 운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한 휴

가 여행이 될 것이다.

어린이는 뒷 자석에

어린이들이 앞좌석에 타는 것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급브레이크 작동이나 사고 발생에 대비, 반드시 뒷좌석에 태우도록 해야 한다. 또한 뒷 자석의 어린이가 주행 중 문을 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뒷문에 있는 안전장치를 작동시켜 놓는 것이 안전하다.

운행정보를 활용해야

휴가 여행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날씨와 도로사정으로 운전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출발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떠나는 준비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정표 및 도로안내 표지를 정확히 주시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엔진이 과열되면

엔진과열은 냉각수 부족 또는 팬벨트의 손상이나 헐거움이 주원인이 된다. 엔진이 과열되면 곧바로 차를 도로의 가장자리를 안전하게 정차시키고 냉각수나 팬벨트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때 시동을 끄게 되면 엔진의 과열로 인한 오버히트가 나타날 위험이 크므로 시동은 끄지 않도록 해야 한다. 냉각수가 부족해서 보충할 때는 라디에이터 캡을 걸레 등으로 충분히 감싼후 1단계만 열어 수증기가 빠져나간 뒤 캡을 열어야 안

전하다.

냉각수가 썰 때는

노후된 자동차는 부식으로 인해 고무호스나 라디에이터에서 냉각수가 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새는 곳이 라디에이터 부분인 경우에는 비누나 밥알을 으깨어 바르고 호수에서 썰 경우에는 비닐 테이프로 충분히 감싸주어야 한다. 이때 라디에이터 캡을 1단계 열어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서서히 주행해야 일시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해변 여행을 다녀와서

해안근처는 소금기가 강하며 이 소금기는 금속의 산화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가 해안근처를 주행하고 나면 그만큼 부식이 빨리 진행된다. 이는 항구도시의 차량들이 내륙지방의 차량들에 비해 차체가 잘 부식되며 이로 인해 고장이 잘 발생하는 사실로 쉽게 알 수 있다.

세차를 할 경우에는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걸레로 닦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자동차를 흠뻑 물에 담근다는 기분으로 목욕을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큰 세차장에서 센 물줄기로 바닥까지 세차를 해주어야 한다. 